

회원사동정

현대중공업(주) 765kV 전용 강관철 탑공장 준공

현 현대중공업(대표:金正國)은 연간 1만 2천톤의 강관철탑을 생산할 수 있는 765kV급 강관철탑전용 공장을 회사내에 새로 건립하고 지난 1월 19일 준공식을 가졌다.

이 신축 공장은 한국전력이 국내 정격전압 345kV를 765kV로 승압키로 함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수주한 8만 8천톤 규모의 765kV급 강관형 철탑을 생산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고품질, 고기술형 철탑 수요추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철탑의 주기둥(Post) 연결용 강파이프를 제작하는 1공장, 주기둥(Post)을 제작하는 2공장과, 각종 부품을 제작하는 소부재공장 등 3개의 공장으로서 구성된 연면적 1천 8백여평의 이 신축 공장은, 대량 물량을 연속공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반 철탑에 비해 6배의 전력 수송량과 4배의 높이(100m)로 제작되는 고도의 품질이 요구되는 765kV 철탑의 특성상 파이프 자동절단기(N/C Pipe Coaster), 부재·파이프 용접기(Roto Weld 2000)를 비롯해 CNC 드릴 등 강관 구조물 가공을 위한 첨단생산설비도 고루 갖추고 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월 4천톤의 철탑을 생산할 수 있는 기존의 철탑공장과 함께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강관철탑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공장까지 갖추으로써 중·저압에서 고압, 초고압 철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양의 철탑을 생산하게 됨으로써 시장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경제개발 정책 추진으로 지속적인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개도국들에 대한 수주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강화 결의 대회

전 기안전강화 결의대회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62개 전국 사업소장 및 동공사의 임직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25일 10시 강동구 명일동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려 '96년을 전기재해 제로화를 성취하는 원년으로 선포했다.

이날 홍세기 전기안전공사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전체화재 중 전기화재 비율은 36.8%로 전년에 비해 2.3% 감소했다』며 『이는 3천 전기안전공사 가족들의 노력의 결실이며, 올해를 전기안전 문화가 정착되는 원년으로 삼자』고 당부했다.

홍이사장은 또한 2천년에 전체화재 중 전기화재비율을 15%로, 전기설비

부적합률을 선진국수준인 2%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전기안전공사 종사자들이 확고한 주체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기 재해예방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국민삶의 질을 높이는 내용의 전기안전결의를 채택했다.

대한전기학회

전기학회 '96년도 사업 계획 확정, 「學술 50年 史」 발간 등 추진

대 대한전기학회(회장:유석구)는 올해 주요사업의 기본방향을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준비 △국제교류 협력 강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국제학회로서의 위상정립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내년에 창립 50주년을 맞게 되는 전기학회는 올해 5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결성키로 하는 한편 50주년 기획담당이사과 국제담당이사를 새롭게 선임키로 했다.

이에 따라 50주년을 기념해 '전기학회 50년사'를 발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전반적인 준비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학회의 중점사업의 하나인 국제 교류사업으로는 오는 7월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게 되는 하계 학술대회에 일본전기학회와 중국전기공정학회 대표단을 초청할 예정이며, 중국 북경에

회원사동정

서 오는 8월 개최되는 'ICEE '96 국제전기공학 학술회의'와 프랑스 파리에 서 열리는 'CIGRE 대전력망 기술회의'에도 대대적인 국내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의 일본전기학회(IEEJ), 중국 전기공학학회(CSEE)와의 학술 교류협정 체결외에 추가로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전기관계 국제기구인 IEEE (미국 전기전자학회)를 비롯, 중국 정공기술학회(CES)와도 금년 상반기중에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9월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대학교에서 SMIC '96 소형 전동기 국제학술회의를 일본, 미국, 중국 등 10개국이 참가하여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다.

한국전력연구원

一流研究所 체제 정립 박차

전 력연구원(원장 : 金翰中)은 올해 연구원 운영목표를 『일류 연구소 체제 정립』으로 정하고 세계적인 연구소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개혁기반 구축과 연구환경 조성에 주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전력연구원은 이를 위해 프로젝트 중심의 관리기법인 PBS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연구원 평가를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 환경, 전기 신소재, 전력산업용 신기술분야 육성 등 중점연구과제를 선정하는 한편,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텐 코어 프로젝트』와 『키 엔지니어링 테크』를 선정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신 분석실험실과 부식연구실을 신설하고, 우수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분야에 재외 한인과학기술자를 초빙하는 등 국내외의 고급 연구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매년 우수연구 및 관리능력을 갖춘 리더를 선발하여 양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연구문화 정립을 위해 Task를 중심으로 능률성과 유연성 있는 팀조직을 운영하고, 평가와 부합하는 보상제도를 정착시켜 경쟁력 연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전직원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실시하는 R&D 관리자과정을 이수케 하여 R&D 마인드와 연구문화를 정립해 나가고, 조직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로 토론문화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력연구원이 올해 수행할 주요 연구개발 사업을 살펴보면, 수화력발전 분야에 석탄가스화 복합발전기술 개발, 배연탈황·탈질기술 개발 등 석탄청정 이용 발전기술 개발과, 발전설비 신뢰도 향상 및 제어 기술의 고도화와 발전 설비의 수명연장 기술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원자력발전 분야에 차세대 원자로 설계기술 개발과 삼중수소 및 방사선 폐기물 유리화 기술 개발 등 원전 핵심설계 및 운용기술 확보와 원전 설비 안전성 및 수명연장 기술 개발에 주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전력계통 분야에 765kV 송전 기술, 배전자동화 기술, 가변송전 시스템 연구 등 전력계통계획 및 수급운용을 위한 연구개발과 대용량 송전기술

개발 및 송변전설비 신뢰도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에너지, 환경 및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연료전지, 태양 전지 연구개발 등 신에너지 자원 기초 기반 연구와 전력사업에 따르는 환경 기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ISO인증 설명회

한 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 이 용희)은 지난 2월 5일 부산무역회관 8층 강당에서 25개 부산, 경남북 지역 조합원사 등을 대상으로 단체표준 품질인증(EQ마크) 및 ISO 9000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시장개방화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 중전기 제품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부산과 경남북 지역 조합원사의 EQ마크 획득 및 ISO 9000인증 획득 지원을 위해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전기 조합 이지수이사는 『단체표준 품질인증 표시규격』 획득에 대한 주제 강연을 하고, 품질보증과 김대원과장이 『단체표준 품질인증 심사기준 해설』 및 『단체인증 및 ISO 9000인증 승인절차』, 『96 정 부진난 지도 계획』 등을 발표했다.

한편 電氣組合의 올해 공동 판매실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325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공관실적을 올렸던 전기조합은 올해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에 일부품목이 추가됨으로써 올해는 더 높은 실적

회원사동정

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지정된 품목은 배전반에 중앙감시반이 포함됐으며, 발전기도 8백kW급에서 1천kW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계장제어반도 25억원 이하의 물량은 중소기업간 제한경쟁품목으로 지정되어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조합은 올해 지난해보다 공동판매가 더욱 활성화될 것에 대비, 품질관리 및 물량배정 관리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국전기공사협회

박芸熙회장再選任, 제31회 총회에서 16대 회장 당선

제 16대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에 회원들로부터 재신임을 얻은 박芸熙씨(동민실업대표)가 당선됐다.

박당선자는 3년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난 2월 9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1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연임 여부를 물었다.

이날 박당선자는 회장후보에 함께 출마한 심상우신원전설(주)대표(前전기공사협회회장), 김철수(합)부원전기대표(前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조국송(주)호금대표(現)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 등 3인과 경합, 당선됐다.

재적대의원 374명 중 369명이 참가한 가운데 회장투표에 들어간 이날 총회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

가 없어 2차 투표에 들어갔다. 2차투표 직전 심상우후보측이 박당선자를 지원키로 선언하고 사퇴한데 이어 조국송후보도 사퇴, 박당선자가 총투표 368명 중 191표를 획득, 177표를 얻은 김철수후보를 누르고 재선됐다.

이날 총회에는 내외빈으로 조순승 국회통산위원장, 김대곤 통산부자원정책실장, 김기수 한전전무, 최현수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권용득 대한전기기사협회회장 김연신 前전기공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회장과 함께 신임이사로 윤충남, 조진기, 이돈수, 정호덕, 김의진, 김봉용, 정호현, 김상원, 최규철, 류정상, 박재환, 김상열, 장용기씨 등 13명을, 신임감사로 박진하씨를 각각 선출했다.

또한 현행 1종 10인마다 1인, 2종 50인마다 1인인 대의원을 후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1종은 20인마다 1인, 2종은 1백인마다 1인으로 감축하는 △정관일부변경안과 △'95년결산 △67억6천만원에 이르는 '96년 사업계획 및 예산 △경북지부 사옥 매각처분안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한 남부지부사옥을 신축키로 의결했다.

박당선자는 연임을 위한 對회원공약에서 △직업전문학교를 전문대학으로 승격하고 △노임현실화 △사무국 정예화 등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박당선자는 당선후 회원들에게 『신명을 바쳐 일하고 또 일하겠다』며 『당선의 영광을 동토를 가꿔 오늘의 협회를 만든 선배들에게 돌리겠다』고 밝

혔다. 또한 회원들과 대화하고 화합해 『힘있고 건강한 협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LG산전(주)

최대수요전력감시제어장치, 국내최초로 EM인증 획득

LG 産電(代表:李鍾秀)이 지난 '94년 자체기술로 개발한 최대수요전력감시장치(Demand Controller)가 최근 공업진흥청으로부터 EM(Excellent Material·Machine·Mechanism)인증을 업계 최초로 획득, 품질에 대한 대외적인 공신력 확보는 물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됐다.

EM인증은 공업진흥청이 지난 3년 동안 국내에서 개발된 기계류·부품·소재중 우수한 제품을 선정, 그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국내 자본재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구입 등을 도모하고자 '9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품질인증제도로 인증을 받은 회사는 자사 제품에 EM마크를 부착할 수 있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와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인증시험에서 이 제품은 현재의 전력과 목표전력을 비교하여 부하를 차단·연결시키는 최대수요전력의 조절기능에서 일본 FUJI제품과 대등한 수준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전력표시·시간·데이터 등 각종 정보를 LCD(Liquid Crystal Display:액정화면)상에 표시하는 기능과 감시결과

회원사동정

에 대한 일보·월보·연보를 자동출력하는 프린트기능이 종합적으로 선진제품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시간대별(주간·야간·심야) 목표전력 설정, 차단금지부하 설정, 건전지 교환시 자료보존 기능 등 선진제품에도 없는 첨단기능을 내장하여 제품의 신뢰도를 대폭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최대수요전력감시장치는 공장 및 빌딩, 호텔, 병원 등 전기사용이 많은 수용가에 설치하여 최대수요전력을 수용가측에서 목표로 하는 전력한도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에어컨, 냉방기, 펌프 등 잠시 꺼도 되는 부하를 자동으로 차단·연결시켜 전기사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에너지절감기이다.

최근 전력사용 Peak시 나타나는 심각한 전력난 현상에서 볼 때 전력예비를 확보와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최대수요전력감시장치는 향후 그 수요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동력용 전력을 사용하는 100kW 이상 수용가가 6만여개에 이른다는 점에서 잠재시장 규모가 3000억원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난 '94년도에는 전력공급예비율이 2.8%까지 내려가 제한송전이라는 위기상황이 발생했고, 올해도 전력공급예비율이 3.4%로 전망됨에 따라 한전 및 정부에서는 효율적인 전력관리 차원에서 모든 감시·제어 기능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최대수요전력감시장치에 대한 보급을 본격화할 방침이며, 올해안에 전국 50여개 공공도

서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시장환경에서 LG산전이 업계 최초로 EM마크를 획득, 대외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았다는 것은 향후 시장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는 것 뿐만 아니라 FUJI, TOSHIBA같은 일본제품과의 대등한 경쟁과 전기보급률 및 발전량이 절대 부족한 동남아 시장 진출에 밝은 전망을 던져주고 있다.

한편, LG산전은 최근 기능뿐만 아니라 디자인, 색상 등의 외형을 기존 제품보다 고급화시킨 주택용분전반을 개발하고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 출시하였다.

지난 1년간 3억원을 투입, 대전산업대학 산업기술연구소와 공동개발한 이 제품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소비자들이 주택 인테리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 착안, 기존 단색 위주의 직사각형 형태에서 탈피하여 라운드형의 유연한 외형과 다양한 색상, 그리고 세련된 외장 무늬를 적용한 고품위 주택용분전반으로 국내 분전반업계 최초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LG산전은 이번에 分岐노출형과 分岐매입형 2종류를 선보이는데, 두 모델 전부 4회로 이상 8회로 이하의 중대형·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분기노출형은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형태로 분기차단기의 동작상태를 즉시 확인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며, 분기매입형은 분기차단기를 투명창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디자인이 Simple하고 고장률을 줄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제품 색상에서도 이 제품은 색상을 단색에서 10여 종류로 다양화하여 소비자의 제품 선택의 폭을 확대시켰으며, 향후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색상을 주문받아 개별 생산하는 주문형 생산 방식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기능명에서도 기존 제품보다 훨씬 우수하다. 우선 성능이 주요 기준인 차단용량에서 이 제품은 MCB(초소형 배선용차단기)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제품의 경우 1.5kA에 불과했던 단락 차단전류를 2.5kA로 대폭 증가시켜 안전성을 향상시켰으며, 차단기를 볼트로 설치하지 않고 35mm RAIL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DIN-RAIL 방식을 채택하여 분기증설이나 보수 유지시 매우 편리하게끔 하였다.

또 분전반의 크기가 현재 판매중인 제품과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 Type의 호환이 가능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경제성을 제공할 수 있다.

분전반이란 전기를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과부하를 차단하는 장치로 크게 산업용분전반과 주택용분전반으로 구분되는데, 주택용분전반은 설치 장소가 일반 주택의 실내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기능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도구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디자인 감각도 최근들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LG산전은 이 제품을 전략제품으로 삼아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의 고급주택을 집중공략하여 올해 150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주택용분전반 시장에서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한 30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